

학교현장실습_내러티브

연극영화교육전공
20253088 안주영

26년4월30일

교생실습 첫날이지만,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라 선생님들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학생들도 만나보지 못했다. 각자 학교의 실습 일지를 채우느라 정신없었고, 처음 보는 11명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들 서공예에 오게 된 이유 혹은 과정을 나눴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 전공 주임 교수님 덕분에 실습 학교를 편하게 구했음을 실감했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말을 아꼈다. 학생들과의 관계보다 사실 함께하는 교육실습생 선생님들이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날이다.

26년5월8일

오늘은 아트홀 청소가 있는 날인데, 학부를 졸업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기에, 청소를 도우러 갔으나 오히려 짐만 되는 느낌이 스스로 강하게 들었다. 학생들이 청소를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했으나 극장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 의상 정리를 도우러 갔다. 학생들은 알아서 척척 잘 해내긴 했으나 그것과 별개로 예고에서 근무하는 나를 상상했을 때 너무 오래 쉬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소 위축되는 하루였다. 일반 교과 교사와 달리 예술 교과 교사들이 지닐 역량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26년5월11일

조종례를 맡게 되었다. 학급담당 선생님께서 이번이 첫 담임을 맡은 해이고, 교생이 처음이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곳에서 신경써주심이 느껴졌다. 교생실습에 나오기 전엔 학생들과 아침에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해두기도 했는데, 막상 조회 시간에 들어가 보니 피곤함과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출결확인과 공지사항을 빠르게 전달하고 나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종례 시간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교실이 너무 더럽다. 대부분의 수업을 다른 강의실에서 해서 그런지 교실이 주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자기 방처럼 지나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상적인 학급 운영 대신 잔소리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고민이 깊다.

26년5월12일

예술교육부장님의 연수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학생들을 매우 사랑하심이 느껴졌다. 일반고에서 근무했을 때와 정말 많은 차이가 느껴지며, 사립 학교의 특성상 오랜 기간 근무하신다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연수 중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강사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술 교과 특성상 교수자가 경험한 것이 많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해왔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되기도 했다. 잠깐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나도 학생들이 참 예뻐 보이는데, 애정이 있는 만큼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겠다는 생각이 들며, 그렇기에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자기 계발에 힘을 쏟아야 함을 느꼈다.

26년5월13일

오늘 첫 수업시연을 하게 됐다. 학교에서 1차시로 구성하여 시연을 해봤던 주제인데, 3차시로 재구성하여 준비했다. 학교와 달리 시각적 자료가 없어서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잘 따라왔다. 또한, 고민됐던 지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은 나의 욕심과 학생들에게 더 이해가 쉽고 실용적인 수업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이었기에 내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많은 열정으로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니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진 않았지만, 활동 시간을 조금 더 잘 분배할 필요성 외에는 나름 흡족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26년5월29일

지난주에 있던 뮤지컬대회에 이어서 오늘은 뮤지컬대회 본선이라 대학 교수님들까지 초청하여 심사를 부탁드렸다. 학생이 아닌 외부인의 시선에서는 학생들이 참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학비를 냈으니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학생들이 본선 무대에 오르는구나 싶었다. 또한, 예술 교과 교사이기에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도 갖춰야 함을 느꼈다.